

053장-눅9장28-36예수만보이더라-luk101128

예수님만 보이더라

2010년 11월 28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9:28-36

(눅 9:28, 개역)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눅 9:29, 개역)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눅 9:30, 개역)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눅 9:31, 개역)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눅 9:32, 개역)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눅 9:33, 개역)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눅 9:34, 개역)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눅 9:35, 개역)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눅 9:36, 개역)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그것으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쪽에서 제시한 천국은 사람들이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 쪽에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그 천국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천국에서 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현 수준에서 천국을 보고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이 발각될 것 뿐입니다. 보통 등산로에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은 그 산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변화산이란 인간들이 늘 붙잡아 둘 그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줄 때만 그 영광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표지판을 남겨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 표지판에 몇 개가 됩니다. 첫째, 그 변화산에는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 죽으심이 주제가 되어 이야기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표시판은 베드로가 보여준 겁니다. 그는 천국을 본 소감을 여과없이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는 좋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좋은 것이 좋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세 번째 표시판으로 말해줍니다.

세 번째 표시판은,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그런 노골적인 고백이 천국 사람으로 합당한가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표시판은 바로, “예수만 보이더라”입니다.

이 네 가지 표시판은 변화산 영광이 사라지고 산을 내려가서 제자들을 다룰 때 원칙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여기가 좋다”는 그 솔직성은 평소에 세속에 속한 인간들의 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아를 부지할 수 있는 자리를 다듬기에 분주합니다. 외부에 있는 각양 좋은 것이란 죄다 주워모아 자신의 자리를 빛내고자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원래 이러합니다. 이 우주에서 신의 질서와 흔적을 찾고 그 가치를 진·선·미로 간주합니다. 그 간주된 가치를 모조리 신과 접선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인격에 집중시킵니다. 근사하고 고상한 옷과 가구나 음식과 노래와 그림 같은 것들을 최고로 공들여 놓은 건물에 집결시켜 놓고서는 최상의 제물을 신에게 바칩니다.

즉 내 쪽에서 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신과 접선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시도가 천국행을 가로 막는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뭘 행하는 것은 결코 신에게 도달되지 못하고 그 끝은 자신의 자신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물이 됩니다. 이 소유물로 채워져서 생기는 경계와 윤곽이 곧 자아상이 되고 이 자아상을 절대적으로 끌고가는 그 흔적의 바뀌가 역사가 됩니다.

곧 자신이 주인공이 된 소설을 매일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천국을 보았다면 그 본 천국마저 곧장 캡처해서 자기를 더욱 더 고상하고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만들 역사의 귀한 업적물로 녹아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하는 짓을 일체 인정해주지 않으려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시판은, “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줄을 모른다”고 단정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일려면 그런 소설 쓰기가 실패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분의 실험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역사 꾸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지도자이지만 본인 자신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사적 높이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입

니다. 목표에 도달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모세와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모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실패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필요한 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11-14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역사중심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두게 하셨습니다. 사전에 이 사항을 엘리야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호되고 고된 생활 속에서 인간은 결국 자기 의로움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의 활동과 상관없이 순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7000명의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두 오직 예수님의 별세 때문에 구원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은 제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에도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역사라면 곧장 지옥의 불구덩이로 직행하는 넓은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3강-눅9장28-36예수만보이더라-luk101128.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3강-눅9장28-36예수만보이더라-luk101128.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3강-눅9장28-36예수만보이더라-luk101128.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3강-눅9장28-36예수만보이더라-luk101128.pdf>

053장-눅9장28-36(예수만 보이더라)-luk101128-(이 근호목사)

2010-12-01 15:25:27 녹취 : 오용익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28-36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교회 김장하러 올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큰 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교인이 누구 하나 빠지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말씀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을 볼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교회 십년 다니고 이십년 다니고 목사가 된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못가면 그것이 다 가짜로 들통이 나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김장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난 9월에 제가 여행을 멀리도 갔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좋다는 소문나고 볼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 장소에 기어이 가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기어이 그 장송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곳,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이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없어요.

있다면 갑니다. 그게 히말라야 산맥에라도 있다면 갑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갑니다. 옛날 역사책에 보면 유토피아, 천국을 지리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 딱 정해

놓았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모험에 나서고 사람들은 일가친척 다 버리고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시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만들어줘야 되고 보여줘야 비로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 봐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난처한 점이 뭐냐, 내가 나를 그곳에 있게 하지 못하는 장소를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곳에 있게 못하는 장소. 예를 들어 남극 같으면 나를 어떻게 해서든 그 장소에 있게 하지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아무리 나에게 강요를 하고 무슨 행함을 하고 뭘 해도 나로 하여금 그 장소에 있게 못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교회 세우고 예배당 짓고 주차장 넓히는 이런 것은 그 앞에서 아무 문젯거리도 안돼요.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것도 문젯거리가 아닙니다. 폭탄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 가야 되는데 이곳에 못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수십 년씩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떠벌이고 자랑해 봐도 목사라고 우겨 봐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강가에 집을 짓는데 터가 좋으면 한 번 집을 지은 뒤에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몽개지면 그 터 위에 또 짓고 다시 또 짓는 식으로 계속 지어요.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파가면서 표시를 해놓아요. 이것은 기원전 1500년, 이것은 기원전 1400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굴되는 층과 그 층에서 출토되는 토기 같은 것들에 다 연대표시를 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자는 말이지요.

변화 산이 있다면 그 변화 산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31절에는 어떤 표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이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변화 산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딱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에 이런 표시들이 등장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팔공산에만 가 봐도 ‘정상가는 길, 매점 가는 길’ 표시가 있듯이 표시를 해보자 이 말이죠. 표시를 왜 하느냐, 어쨌든 이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변화 산에 천국은 아니에요. 가봤자 그냥 언덕일 것이 분명하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소는 주님께서 보여줬다 그 말이죠.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느냐 그 말이지요. 처음에 변화 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줄 때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고 어떤 대화, 어떤 흔적을 남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흔적을 남겼다면 그 흔적에 표시를 해 보자는 겁니다. 표시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소개하면서 모세 엘리야를 불러내면서 보여줬던 그것이 오늘날 성경책을 보고 있는 우리와 접촉점 역할을 하라고 어떤 징조를 남겨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놓치면 안 되지요. 깜빡하면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그것을 표시해놓으면 그 표시가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 안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시가 뭐냐, 31절에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때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그 대화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흔적으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미 천국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자기 편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흔적도 딱 적어봅시다. 예수님이 별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뭔가 확보이니까 자다 벌떡 깨어나서 보니 새로운 천국이 세계가 보이니까 그때 인간들의 본성이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 ‘와,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좋습니다’라는 표시를 해보자 그 말이지요. 여기가 좋다는 그것은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생존, 하루하루 어떻게 밥 먹고 사는가, 그런 것을 다 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자기에게 주님 주신 환경에 너무나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감, 중압감, 짓누르는 어떤 느낌 같은 것,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짓누르는 무게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깡그리 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천국을 처음 접했던 본인의 소감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좋사오니, 나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나는 이 정도 되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집중되는 관심사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것, 자기가 일구어왔던 것 여기에 집중했다면 천국을 접했던 베드로의 첫 소감은 뭐냐, 자기 삶, 자기 집구석, 자기교회 이런 것은 다 잊어버려요, 꼭 삼층 천에 올라간 기분 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 말고 자기가 소속된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뿡 가버렸어요. ‘여기서 좋사오니 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흔적으로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팔공산 갔다고 생각하고 동화사 올라가는 길이라 여기시고. 변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표시가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정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십자가의 죽으심,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은 나는 모르고 하여튼 우리의 느낌은 아, 끝내주네. 바로 내가 찾던 곳이 이곳이야.’라는 느낌을 베드로가 토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냐, 33절에 ‘저희가 자기가 하는 말을 할지 못한다.’는 이것이 세 번째 표시입니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라고 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당장 자기 기분은 업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저 보이는 대로 기분 유쾌한 대로 즐거운 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은 그냥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느낌대로 사는 것과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세계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느낌대로 감정의 기복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도 몰라요. 그냥 기분 좋다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이런 조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시가 뭐냐, 36절에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네 번째 표시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두 번째는 ‘여기가 좋사오니.’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말도 뭐가 오류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 네 번째는 예수만 보인다는 것.

예수만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는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변화 산이고 뭐고 그 모든 영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음성만 들렸다는 겁니다. ‘이제 잠깐 봤지? 멋지지? 천국 좋지?’ ‘예, 좋습니다.’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오직 자기 앞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표시를 주님께서 되풀이 하십니다.

되풀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변화 산이라는 천국을 보여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를 대표하는 인간의 뜻이 얼마나 강하게 대비, 대조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산 밑에서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세, 자기가 뭔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다가 떠날 즈음이 되니까 베드로가 다급했던 모양이지요. 자꾸 떠나가면서 사라지려고 하니까 이걸 붙잡아두려고 한 거예요. 붙잡아야 되니까 초막 셋이라는 주택을 제안한 거예요. ‘내가 주택 세 채를 지어드릴 테니 그냥 우리하고 삽시다.’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삽시다. 우리도 산 밑에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글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니까요. 변화 산을 보고 지옥갈수가 있습니다. 천국 보고 지옥 간다니깐요. ‘내가 천국 봤다. 거기 너무 좋더라. 난 거기서 살기

를 원했어.’ ‘땡!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사람의 평소행세가 뭘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뭘 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뭘 붙잡고 행해버리면 그게 자기 소유가 돼버려요.

자기 소유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기역사가 됩니다. 자기 역사가 되면 그 역사의 소설의 주인공은 본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감안하는 사항이 뭐냐,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한테만 관심이 가고 예수만 보이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꼭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잡아당겨서 자기 소유삼아서 자기만의 고상한 인생역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지 그 차이를 제가 봐요.

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제 취미가 더러워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산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변화 산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천국을 왜 보여줬습니까? 천국을 보여주니까 네 가지 표시가 나왔잖아요. 이 말은 천국을 보여주니까 인간은 왜 천국을 봐도 못 들어갈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의 그 내막, 이유가 다 들통이 난 거예요.

봐도 못가요. 왜 천국에 봐도 못 가느냐 하면, 천국은 보기는 봤지, 자기의 평소 하던 행세와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지,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합세가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제자들은 죽으심에는 관심이 없고 ‘와, 땡이다. 여기 좋다! 여기에 집짓고 삽시다. 제가 힘껏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산의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안 맞고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무엇을 예고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베드로의 자기소유와 모든 역사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어서 일체 예수님만 보이는 자리로 옮기고자 하는 시도를 이제부터 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 산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변화 산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베드로 본인도 미처 몰랐던, 내가 천국 못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들통 내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을 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 들통 난 세상적인 이것은 베드로가 그대로 천국에 못갈 사람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베드로 자신이 자기에게 손질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는 베드로도 안 되고 우리도 안돼요.

김 ○성 집사님께서 교인들 점심 대접하겠다고 회를 두 박스 사오셨어요. 보니까 회를 손질을 다 해놓았어요. 파는 사람이 다 손질했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역사를 누가 손질하고 싶어 하느냐,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깔끔하고 예쁘고 착하고 거룩하게 손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질하겠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50년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실상은 이렇다.’고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너를 손질하겠다는 뜻인데 물고기가 칼을 쥐고 자기 배를 가르면서 회를 뜨면 이것은 인어지 그게 물고기입니까, 이런 물고기를 봤습니

까?

그게 사람이지 고기이겠습니까? 오늘 회로 점심을 드시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회 거리가 자기가 자기를 손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는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것은 네가 너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또 다시 베드로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람은 아침에 눈만 뜨면 소설 씁니다. 소설은 주인공은 주인공이에요. 나는 인생 이렇게 꾸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 팔을 벌리고 띠 띠우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싫어하는 남이 와서 나를 퐁퐁 묶어서, 그 다음에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면 내 소설은 그 순간 불타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다 산산조각 찢어집니다. 그럴 때 나의 자리, 내 소유의 역사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절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청사진, 그 설계도는 이미 변화 산에서 나왔어요. 왜,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캐치해서 나의 고상함을 티내기 위해서 나의 장점으로 그것을 집어넣고 소유화해서 성화된 것인 양, 훌륭한 교인인양 장착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역사가 돼요. 그렇게 고상한 역사를 갖게 되면 누가 와서 약간만 집적대도 와락 세퍼드처럼 물려고 달려듭니다. ‘이 착한 나를 누가 시비 걸어.’ 하고 와락 달려듭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어항을 만들어놓고 예수라는 물고기를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2천년 역사의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신학을 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고상한 역사로 탈바꿈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이것이 성경말씀 대하고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성경말씀을 대하는데, 변화 산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나를 그곳에 있게 만드는 그 악마 짓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주께서 데려간다는 것을 일체 인정 안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로이 탈바꿈 시켜서 나로 그곳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매일같이 어떤 식으로 나의 소유, 나의 역사를 회치듯이 잘라낸다는 사실을, 그 흔적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십자가라는 칼날을 들고 작살낸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주께서 칼을 들고 내 뿌리와 내 자리를 잘라내니까 우리는 덤석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을 빼앗아서 자기가 자기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부인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는 구원 되지를 못합니다. 방금 어려운 문장 두 개 나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로는 천

국에 못잡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상호 연결해 보세요.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인문학서적에 나오는데요, 인간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대자연속에서 신의 질서를 찾고(과학이죠) 거기서 진선미,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끄집어 당겨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라는 것은 진선미, 인간이 할수 있는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은 다 끌어 모아서 집결시킨 곳이 바로 종교제단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그러하고 역사를 보면 이것이 다 나와요. 최고 좋은 것, 제일로 맛있는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 제일 뛰어난 건축기술과 미술과 음악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집결하느냐, 신의 제단에 둡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메시스, 모방이라 합니다. ‘신은 자연을 주셨다. 우리는 자연을 모방함으로 말미암아 신과의 대화를 소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는 겁니다.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당신은 나를 그 높은 산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방이에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을 다 예배당에 가져다 바쳤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서서히 뭘 알게 되었느냐, 사람은 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이 무슨 가방을 들고 있고 무슨 파마를 했으며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탐내는 거예요. 신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낸다는 사실, 남의 것을 모방해서 항상 나를 정립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강의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속에 혼자 살면서 ‘나는 외롭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남들 앞에서 나는 외롭다고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혼자 살고 혼자 외로워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해봐야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진짜 외로워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모방을 할 때 남의 것을 모방해요. 어린애가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엄마와 아빠와 사촌들, 일가친척들한테 받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모방해서 자기 자신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것을 모방해서 남과 유사하게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할 때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자기 안에 나만의 신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각양 좋은 것, 변화 산 이야기도 좋고 예수 십자가이야기도 좋고, 이것을 전부 모방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졌으면 자기도 십자가 지는 척 하고 주께서 어렵게 살면 자기도 어렵게 사는 척을 해서 진선미, 고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끌어당겨다 자기 안에 담는 것은 나는 신이라는 타인, 그리고 예수라는 타인을 통해서 내가 홀로 신이 되고 싶은 악마의 얼굴, 악마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나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변화 산 나왔습니다. 거기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큰 일 났습니다. 지도상에 어떤 특정지점이 있으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갑니다. 돈 써서 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없습니다. 없는 곳에 우리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큰일 난 거예요. 널 오후 1시에 김장해야 될 텐데 올 사람이 없어서 큰 일 났습니다. 아까 이야기 이미 했지만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광고하다시피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니예요. 팔공산 기슭에 있는 우리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거야 우리교회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교회 나와 봤자 또 자기역사 속에 ‘여기가 종사오니’ 하고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대책이 없지요. 대책은 없는데 여기서 첫 번째 안내판에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그것이 마지막 힌트고 희망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보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바로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실패하면 못 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실패케 해주시면 모세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실패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고정된 지도상의, 지리상의 지점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사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곳에 있게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약속의 능력이 임할 때 나를 잡아채서, 나를 사로잡아서 데려가는 식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최성수가 부른 노래처럼 ‘동행’입니다. 동행은 동행자가 옆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일을 제대로 하셔서 어설프게 애가 김장한다고 다 망쳐놓을 때 김장도사 권사님이 ‘애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 줄 때 비로소 권사님 덕분에 그 애는 맛있는 김치를 먹을수 있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그 때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가 다시 한 번 실감나는 거예요. 그 변화 산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속에서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도 천국 갔으면 된 거지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패자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것은 천국도 못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비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존의 나의 역사, 내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있는 거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께서 주신 능력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자꾸 우기게 만든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는 무조건 내가 중요하고 예수만 보이더라가 아니라

나만 보이더라, 매일같이 눈뜨면 나만 보이더라, 거울 앞에서 나만 보이더라,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이유, 그 결과가 처음부터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세계에 주께서 동행하셔서 넣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동행할 때 어떤 근거로 동행해주는가,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는 숨어있는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령의 모든 일은 숨어 있는 비밀을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기는 식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뽀뽀 숨었는지 인간의 지혜, 어떤 신학과 학문과 과학과 목회의 성공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그것은 성령님이 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를 알 때 왜 평소에 내가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설교도 할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데 왜 강의나 설교나 자기반성과 자기회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모아봐야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안되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 봐야 그것은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소설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그 소유가 뭉쳐서 나의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하는데 만약에 동행자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런데 동행자가 계시기에 ‘너 오늘도 참 헛수고 많이 한다. 네가 백날 해봐야 구원되지도 않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네가 네 역사를 쓰다 보니 네가 네 뜻대로 안되다 보니 네가 얼마나 나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발길질했고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느냐.’

제가 대전에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아주 솔직하고 용감한 분들이 가끔은 눈에 띄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은 개새끼라는 겁니다. 와,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억한 심정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만이 주인공 되는 자기인생에 대해서 훼방꾼이 되고 방해꾼이 되었으면 그런 욕이 다 나왔겠습니까? 그 욕이 바로 마귀의 욕이잖아요. 마귀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우리는 두꺼운 비계 덩어리같이 매일 매일 그것을 위선으로 위장하고 있지 사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다 그 말이지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글 듣고 반가워서 얼른 십자가마을에 올랐습니다. ‘예수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 솔직한 고백, 제가 보기에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비계 덩어리 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실수를 했는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지요. 찾아오는데 강한 지진과 바람이 바위를 부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바람가운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씹었던 것 안에는 다 안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 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더러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큰 실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7천명 남겨둔 것을 모르고 자기만 신앙 좋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자기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믿음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역사 속에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같지만 그 시선은 다시 꼬부라져서 자기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마지막 화살촉이 도착하는 지점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엘리야 저 혼자 남든 안 남든 관계없이 남은 7천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엘리야한테 안 가르쳐줬습니다. 왜 안 가르쳐 줬느냐, 그걸 가르쳐주면 엘리야가 이런 소리 합니다. ‘나와 7천명이 있습니다.’라고 이 따위 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겨진 7천명 이야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그 원초적인 본성, 인간적인 본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아무도 두 번 다시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나와 사모하고 남았는데 사모도 영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맨 날 돈 벌어오는 일이나 관심 쓰고 그저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변화 산을 보여줘도 천국에 못갈 본성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차질 없이 잘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7천명이 될지 7십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한 마리의 양도 목자는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애써봤자 구원받을 티오 말고 더 추가해서 구원받을 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뒤의 말이 아주 즐겁지요. 이 말이 전도 안 해도 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무리 전도하고 애쓰고 증보기도하고 철야기도 해봤자 택한 백성 외에 추가로 구원되는 그런 양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들통 날 것 다 들통 나아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더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요란하게 변화 산 안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갑자기 해같이 안 달라져도 세미한 음성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대하면 기껏 나만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 악마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별세의 능력, 십자가 앞에서만 그 능력이 나와요.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케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갈 때 엘리야가 알았던 것은

뭐냐?’주여, 이 옆에 있는 모세와 저 엘리야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서 우리가 구원 받는군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남았으니까 어서 지세요.’라는 대화를 변화 산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베드로는 밑에서 ‘여기서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은 사람의 손때가 묻어버려요. 사람은 죄가 없는 무죄인과 의가 넘치는 의인을 구분할 줄 몰라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작업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장착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올 때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마니가 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를 통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천하죄인인 우리를 동행자로 뽑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쥐어박아요. ‘오늘도 소설 몇 장 썼나?’ 하고 쥐어박고 ‘진선미 뽑아서 너 잘난 것 창고에 다 넣어놨지? 빨리 부쉬라.’ 하고 늘 쥐어박아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엘리야도 모세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한다는 표시를 변화 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고 설치게 되면 낙담과 낙심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자기역사가 튀어나오니까 멈칫 하고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시다.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을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 주께서 또 은혜를 주시네요.

한국 여자 양궁을 하는데 아주 약을 올려요. 항상 처음에는 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해설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10점이 보이면 10점만 보고 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랐는가? 주위에서 알아주든지 말든지 지옥가든 천당 가든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10점만 보고, 사명만 생각하고 활 들고 쏘면 됩니다.

중국관중이 와, 하고 야유 성 응원을 하든 말든, 상대팀이 몇 점을 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십 점 타깃을 보고 ‘아, 저 동그라미가 십 점 타깃이네.’ 하고 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와!’ 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별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귀들이 흔들어대는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달라고 떼를 썼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능력인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엘리야와 모세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수님의 별세만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